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정답

1	⑤	2	②	3	③	4	②	5	④
6	④	7	④	8	⑤	9	④	10	⑤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⑤
16	④	17	①						

[1~2] 2013.04B 독서법

1.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 정약용은 맹목적인 독서를 지양하고 있다. 많이 읽는 것에만 집중하여 자세히 읽지 못하는 것은 식견을 새로 여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 ② ㉡  
→ 정약용은 많은 독서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  
→ 정약용은 책의 선택에 관해서는 <보기>에서 언급한 바가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  
→ 정약용은 책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므로 책이 끝나면 다른 책으로 바꾸기보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 ⑤ ㉣  
→ 정약용은 맹목적으로 책의 내용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의 맥락과 상응한다.

2. 밑줄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①</li> <li>→ 필자는 쫓기듯 책을 많이 읽기 보다는 별도로 독서의 체계를 세워야 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책 중 더 절실하고 긴요한 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li> </ul>
읽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 ②</li> <li>→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다.</li> <li>·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 ③</li> <li>→ 필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정해진 분량을 이해하며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li> <li>·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 ④</li> <li>→ 필자는 속독, 속고의 태도를 통해 한 글자, 한 구절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며,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하여 본뜻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적절하다.</li> </ul>
읽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해야 한다. .... ⑤</li> <li>→ 필자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다시 음미하며 그 의미와 이치를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적절하다.</li> </ul>

[3~5] 2013.07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3.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의식의 흐름 기법은 등장인물이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서술의 흐름이 부자연스럽다는 특징을 갖는다. [A]의 서술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회상을 통해 인물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A]에서 인물의 태도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특정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  
 → '김'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목적과 농약을 강하게 뿌리는 행위에 대해 서술자가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A]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다. 때문에 '-었다'와 같은 과거형 어미를 활용하여 제시되고 있다.
- ⑤ 사물의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 [A]에서 사물의 섬세한 묘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또한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4. ㉠에 드러난 인물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  
 → ㉠은 '김'이 농약을 뿌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신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내용은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과는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농민과 도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의 다음 내용의 '농약 우린 물을 김칫국이랍시고 먹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책임의 절반을 물어야 한다고 믿었다'라는 서술에서 '김'은 ㉠의 행위가 자신만이 아닌 도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도시 사람들에 비해 농민들이 더 우월하다.  
 → '김'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 농민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장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김'이 장사의 기본 원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따진다.  
 → ㉠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동네 황씨」에는 산업화로 유입된 도시 문화를 접하면서 겪는 농촌 사회의 변화가 담겨져 있다.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대중적 문화가 농촌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문화를 밀어내면서, 이기적이고 물질중심적인 인간으로 변모되는 농민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산업 사회에서 농촌이 도시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간인 동시에 도시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을 소비하는 공간이 되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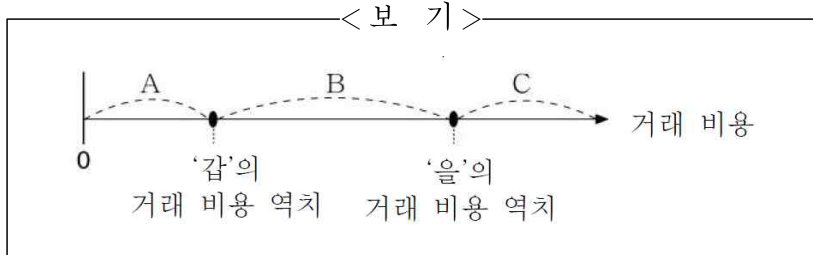
- ① ㉠: 농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쓰는 농민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  
→ ㉠의 앞 내용에서 농약이 나쁘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농약을 사용하고 있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농민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 ② ㉡: 농촌으로 들어오는 공산품이 대부분 불량품이라는 말에는 농민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이 담겨 있어.  
→ ㉡에서는 농촌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대부분 불량품 또는 가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 제시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배울 것 하나 없는 텔레비전이라는 말을 통해,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드러나고 있어.  
→ ㉢에서 텔레비전을 ‘공해’라고 표현하는 모습에서 도시의 대중적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 도시 소식은 흉악한 것들이 많다는 말을 통해, 삭막한 도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인정 넘치는 농촌 문화를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에서 도시 소식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옳으나, 농촌 문화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 농민들이 낚 놓고 연속극에 빠져 있는 상황을 통해 도시 문화가 농촌의 건강한 문화를 해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 ㉤에서 농민들이 윤리적이지 못한 내용의 연속극에 빠져 있음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의 문화인 연속극이 농촌의 문화를 해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6~9] 2009.03 사회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학의 원리는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  
→ 6문단에 따르면 경제학의 원리는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② 사람에 따라 거래 비용의 역치는 다를 수 있다.  
→ 5문단에 따르면 사람마다 거래 비용이 역치가 다를 수 있다.
- ③ 거래 비용은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 3문단에서 코즈 교수는 거래 비용을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외적 개입이 없다면 거래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 5문단에 따르면 거래 비용의 역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외적 개입이 없는 상황이라도 거래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 ⑤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거래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 2문단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7.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외적 개입 여부’에 대해 ‘갑’과 ‘을’이 동일한 의견을 보일 구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A, C
- ⑤ B, C

[해설] 갑의 거래 비용 역치는 을의 거래 비용의 역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A구간에서는 갑과 을 모두 외적 개입이 필요치 않아 사적 교섭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B구간에서는 갑의 경우 거래 비용의 역치를 벗어났고, 을의 경우 거래 비용 역치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은 외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고, 을은 외적 개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한편, C구간에서는 갑과 을의 거래 비용 역치를 모두 넘었으므로 갑과 을 모두 외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A와 C구간에서 갑과 을의 의견이 동일할 것이다.

8. <보기>는 ㉠의 문제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들의 침입에 의한 농부의 연간 손해는 20만 원이다.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연간 비용은 16만 원이다.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연간 비용은 10만 원이다. 이 지역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방목제한제(농부의 권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목장주가 자신의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목장주는 농부에게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 주면 그 차액으로 인한 이익 6만 원의 1/2인 3만 원과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비용 10만 원을 합해 농부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 교섭에 드는 거래 비용은 1만 원이었으므로 이 교섭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① ‘협력적 잉여’보다 거래 비용이 더 컸다면 교섭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군.  
→ 위 거래는 농부와 목장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 잉여를 창출하는 거래였다. 윗글에서 발생한 협력적 잉여보다 거래 비용이 컸다면 거래 비용의 역치를 넘어 교섭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② 법적인 해결보다 교섭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  
→ 법적인 해결 방법인 방목제한제를 따르는 대신 교섭을 통해 목장주와 농부는 협력적 잉여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이 지역에서 채택한 방목제한제는 ‘규범적 흡스의 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  
→ <보기>의 사례는 교섭이 성공한 사례이다. 규범적 흡스의 정리는 사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 ④ 농부나 목장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농부나 목장주의 입장에서 울타리는 의도치 않게 목장의 소가 옥수수 밭에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부정적 외부성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규범적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방목제한제’는 목장주가 교섭보다는 법적 강제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겠군.  
→ 법적 강제를 선호하여 방목제한제를 따랐다면 목장주는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목장주는 교섭을 통해 옥수수밭에 울타리를 치는 결과를 만들었으므로 방목제한제는 목장주가 법적 강제보다 교섭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았다.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국제기구는 국가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예문에 활용된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② ㉡: 개인들의 노력이 합쳐지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다.  
→ ㉡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예문에 활용된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③ ㉢: 기름 값이 오르면서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 ㉢는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예문에 활용된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④ ㉣: 여러 회사 중 우리 회사가 수도권 지역 사업자로 설정되었다.  
→ ㉣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의 단어는 여러 회사 중 뽑힌 것이므로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의 의미인 '선정'으로 사용되는 것이 올바른 활용이다.
- ⑤ ㉤: 이기적인 욕망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 ㉤는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예문에 활용된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10~14] 2008.04 안민영 '매화사', 정약용 '보리타작', 김훈 '자전거 여행'

10.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 (나)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만, (가)와 (다)는 그렇지 않다.
- ②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가)~(다) 모두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 ③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 (가)~(다) 모두 현실을 외면한채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관조적인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 관조적 태도는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태도이다. 즉,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가)와 (나)는 관조적인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중심 소재에서 긍정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 (가)에서는 매화라는 대상에서, (나)에서는 보리타작하는 농부의 노동에서, (다)에서는 대나무의 모습에서 대상의 긍정적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가)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화자가 매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에서는 상반된 의미의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철쭉과 두견화를 매화에 대비하며 매화의 특성인 우아하고 높은 절개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다)에서는 감각적인 표현과 간결한 문체를 통해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다)는 짧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와 ‘봄의 대숲은~내뽀지 않는다.’ 같은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인 대나무 숲의 다양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가)와 (다)에서는 대상의 생태적 특성을 부각시켜 인간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다.  
 → (가)는 매화의 특성을, (다)는 대나무의 특성을 부각시켜 인간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가)와 (다)에서는 모두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조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상승의 이미지는 (가)와 (다)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다.

12. (나)와 (다)의 [낙원]에 내포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시련 속에서 신념을 다지는 공간이다.  
 → (나)와 (다)의 낙원은 모두 시련 속에서 신념을 다지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나)의 낙원은 세속적 가치인 벼슬길과 대비되는 공간이며, (다)의 낙원은 회복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 (나)의 낙원은 시골에서 농부들이 노동을 하는 공간을 이르며, 이는 세속적 가치인 벼슬과는 동떨어진 공간이다. (다)의 낙원은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두 공간의 의미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 ③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이다.  
 → (나)와 (다) 모두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현실에서의 번뇌를 넘어선 초월적 공간이다.  
 → (나)와 (다) 모두 초월적 공간이 아닌 현실의 공간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수양의 공간이다.  
 → (다)의 공간이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나)의 낙원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13. (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머근 後(후)에  
 바싹긋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 윤선도, 「만흥(漫興)」 중에서 -

- ① (나)와 <보기>의 '보리밥'은 모두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나)의 보리밥과 <보기>의 보리밥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만족하며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나)의 '마당'은 노동의 공간이고, <보기>의 '물가'는 풍류의 공간이다.  
 → (나)의 '마당'은 보리타작을 하는 노동의 공간이고, <보기>의 '물가'는 화자가 풍류를 즐기며 노는 공간이다.
- ③ (나)의 '노랫가락'에서는 흥겨움이, <보기>의 '노니노라'에서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 (나)의 '노랫가락'은 보리타작을 하며 부르는 노동요이므로 흥겨움을 느낄 수 있고, <보기>의 '노니노라'에서는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는 모습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 ④ (나)의 '벼슬길'과 <보기>의 '너나쁜 일'은 모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  
 → (나)와 <보기>의 '벼슬길'과 '너나쁜 일'은 모두 세속적 가치로서 화자가 지양하는 가치이다.
- ⑤ (나)의 '헤매고 있으리요'와 <보기>의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나)의 '헤매고 있으리요'와 <보기>의 '부러워 할 줄이 이시랴'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였지만 평서문으로 전환하면 화자의 생각을 알 수 있으므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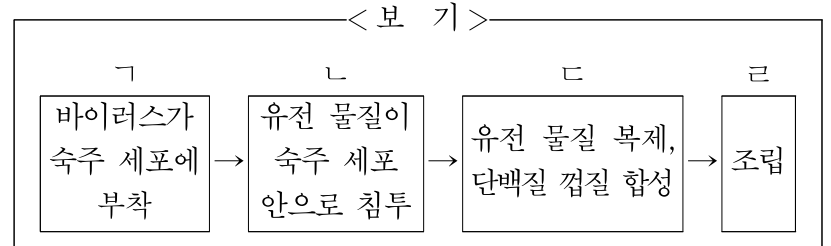
- ① ㉠: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 '어리고 성긴 가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매화를 뜻한다.
- ② ㉡: 매화의 향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암향조차 부동터라'는 매화의 향기가 떠다니는 듯하다는 뜻으로 후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다.
- ③ ㉢: 매화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다.  
 → '빙자옥질'은 여인을 얼음과 구슬에 비유한 것으로 매화를 사람처럼 보아 인격을 부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 화자가 소망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 '봄뜻'은 빼앗길 수 없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 ⑤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 '눈'은 매화에 시련을 주는 대상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보기 어렵다.

[15~17] 2010.10 과학

1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 바이러스의 크기, 구성, 물질대사, 증식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나):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나)는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다): 바이러스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다)의 내용은 바이러스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로 바이러스성 질병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라):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하고 있다.  
→ (라)의 내용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유익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대표적 사례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마): 바이러스가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마)의 내용은 바이러스를 활용한 현대의학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보기>를 참고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ㄱ~ㄹ에 활용되는 유전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라)문단에 따르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사용되는 DNA는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조합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할 때, ㄴ의 과정까지 바이러스는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바이러스는 (라)문단에 언급된 박테리오파지와 같이 유전자 운반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숙주 세포 내부로 들어간다면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다)문단에서 숙주 세포를 그대로 둔 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ㄷ에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는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키게 한다.  
→ (나)문단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가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킨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ㄹ은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 (나)문단에서 조립 과정을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7. ㉠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할 때 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당뇨병은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충분히 합성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 병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이상이 생긴 유전자 대신 인슐린을 원활하게 합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췌장의 베타 세포에 주입해 주어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 ① 바이러스를 이용한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아직까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군.
- ➔ <보기>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이상이 생긴 유전자 대신 정상적인 유전자를 끼워넣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합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 내용에서 제시한 해결방법은 인슐린을 보충해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인슐린 합성의 양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활용한 당뇨병 치료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로군.
- ➔ <보기>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는 인슐린을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 합성의 양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 ③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숙주 세포에 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겠군.
- ➔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인슐린을 원활하게 합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주입해주어야 한다.
- ④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얻으려면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숙주 세균을 찾아야겠군.
- ➔ 현재 있는 대장균을 활용한 방식으로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숙주 세균을 찾을 필요는 없다.
- ⑤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DNA를 재조합하는 것이 급선무로군.
- ➔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DNA를 재조합할 것이 아니라, 췌장의 베타 세포에 생긴 이상있는 DNA를 정상 DNA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